

2013 박물관 시민강좌 12월 강의(2013.12.07)

시와 음식 이야기

소래섭(울산대학교)

내 지렁이는
커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천 년 동안만 밤마다 흙에 물을 주면 그 흙이 지렁이가 되었습니다
장마 지면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뒤에 붕어와 농다리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내 이과책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지렁이의 눈이 보고 싶습니다
지렁이의 밥과 집이 부럽습니다

-백석, 「나와 지렁이」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별교 참꼬막 집에 갔어요
꼬막 정식을 시켰지요
꼬막회, 꼬막탕, 꼬막구이, 꼬막전
그리고 삶은 꼬막 한 접시가 올라왔어요
남도 시인, 손톱으로 잘도 까먹는데
저는 젓가락으로 공깃돌 놀이하듯 굴리고만 있었지요
제삿날 밤 괴 꼬막 보듯 하는군! 통을 맞았지요
손톱이 없으면 밥 퍼먹는 숟가락 몽둥이를
참꼬막 똥구멍으로 밀어 넣어 확 비틀래요
그래서 저도-확, 비틀었지요
온 얼굴이 빨물이 튀더라고요
그쪽 말로 그 맛 한번 승악하더라고요
비열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남도 시인-이 맛을 두고 그들이
있으나 어쩐다나
그래서 그들 있는 맛, 그들 있는 소리, 그들
있는 삶, 그들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곱삭은 삶이래요
현대시란 책상물림으로 퍼즐게임 하는 거 아니래요
그건 고양이와 제삿날 밤 참꼬막을 깔 줄 모르니
앞발로 으르며 공깃돌놀이 하는 거래요
詩도 그들 있는 詩를 쓰라고 또 통을 맞았지요

-송수권, 「통」

어떤 이는 눈망을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 되었다는데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개의 눈망울로 뻗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 이 고
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편 있으니 내 앞

은 접시나 그들 앓은 접시나 매일반.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
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만 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
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
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
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김선우, 「깨끗한 식사」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번-저녁은 번져 잠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장석남, 「수목정원9-번짐」

눈이 많이 와서
 산엿새가 별로 내려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썰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 옆 은뎡이 예데가리밭에서
 하루밤 뽕오얀 흰 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연 부엌에
 산명에 같은 분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
 서 텅텅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든딩에 함박눈이 폭폭 쌓이는 어느 하루밤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꿈의 잔등에 업혀서 길러났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색이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 넘어 마을까지 들렀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쟁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땡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
 한 산평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
 한 샷방 찢찢 끓는 아르곶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素朴)한 것은 무엇인가

-백석, 「국수」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그 따사하고 살뜰한 별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것이다
쓸쓸한 나들이를 단기러 온 것이다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 긴 허리를 굽히고 뒤집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날 때든가
추운 겨울밤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아
말없이 무릎 우 어린 고양이의 등만 쓰다듬는 때든가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 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네 나라의 맑은 한울이 떠올를 것이고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빼여진 어깻죽지에
당신네 나라의 따사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 것이다

높은 산도 높은 꼭다기에 있는 듯한
아니면 깊은 물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 듯한 당신네 나라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높을 것인가
바람은 얼마나 따사하고 향기로우려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 아래 바람결 속에 퍼진
그 풍속은 인정은 그리고 그 말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울 것인가

다만 한 사람이 목이 긴 시인은 안다
‘도스토이엠프스키’며 ‘쥬이쓰’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일등가는 소설도 쓰지만
아모것도 모르는 듯이 어드근한 방안에 굴어 게으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것에게 옛 한 가락을 아끼고 위하는 안해에겐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냥 돈을 거저 주는 그 인정을 그리고 또 그 말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뉘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 말을

그 멀은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사람이여
이 목이 긴 시인이 또 게사니처럼 떠온다고
당신은 쓸쓸히 웃으며 바둑판을 당기는구려

-백석, 「허준」